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제11주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비 전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55. 하나님의 크신 사랑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는 여러 가지 일거리들을 처리하느라 분주했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듣고 계심을 알면서도 무슨 말씀을 올려야 할지 몰랐고, 주님이 이끌고 계심을 알면서도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망설이던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안고 있음을 알면서도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힐 때가 많던 저희들입니다.

무더위에 지쳐 어깨를 늘어뜨리고 걷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생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어주신 값진 것들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웅졸했던 ‘나’로부터 벗어나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주십시오. 환난과 시련이 몰려와도 믿음의 대의를 저버리지 않는 옹골찬 새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사58:11 ..... 인도자

♠ 교 독 문 ..... 45 요한복음3장 ..... 다함께

♠ 영 광 송 ..... 3. 이 천지간 만물들아 ..... 다함께

대표기도 ..... I. 노순옥 권사 II. 한상익 장로

응 답 송 ..... 성가대

찬 송 ..... 252. 기쁜 소리 들리니 ..... 다함께

성경봉독 ..... I. 시편139:1-10 ..... 인도자

..... II. 롬 5:1-5 ..... 구명자 권사

찬 양 ..... 성가대

말 씬 ..... I. 기이하고 높은 지식 ..... 장영숙 전도사

..... II. 희망의 문 ..... 김기석 목 사

거둠기도 ..... 다함께

헌신의 찬송 .....	519. 십자가를 질 수 있나 .....	다함께
헌금봉헌 .....	연주: 홍지희 .....	다함께
♠ 봉 헌 송 .....	354.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길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기쁨을 맛보며 사십시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의 선한 이웃이 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이 명하신 대로 정신을 차리고 살겠습니다.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가려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주십시오.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가 당신께 속한 존재인 것을 한 순간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

담당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에스겔 통독 강좌(46)	에베소서 강해(15)
기도 : 최인환 전도사	기도 : 송양진 권사

<b>다음 주 예 배 위 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황경순 집사 김재흥 목사	인도자 이은자 집사

<b>7월</b>	영접위원	방문성	김인걸	박석희	송양진	이증자	이건화
	헌금위원	윤석철	이인웅	김준호	곽혜자	배상순	박혜경

## 생의 파종기

이번 여름에는 별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 시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상과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세상에서 내게 부과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일들을 가장 완벽하게 해낸다 해도 나는 별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일들은 전부 무시해 버리는 편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은 지금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일인지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요즘 들어 파리들이 웅웅거리는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런 사소한 소음마저 가라앉히지 못하는 내 자신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나 정치인들의 징징대는 소리에 너무 쉽게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중략)

언제나처럼 나는 사람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무 소득 없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그런 관계는 잔바람만 일으킬 뿐 거대한 폭풍으로 발전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무기력과 생활의 정체만 불러올 뿐입니다. 우리의 대화는 유창하고 예의바르지만 한낱 끝없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아침이면 나는 환자가 처방에 따라 쓴 약을 단숨에 들이키듯 단단히 마음을 먹고, 다시 이야기의 줄거리를 이어갑니다.

에머슨은 자기 삶의 대부분이 너무나 소득 없고 초라하며, 자신이 온갖 종류의 즐거움, 특히 그 중에서도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 우리의 차이점은 단지 즐거움의 대상에 있다고 말합니다. 나의 즐거움은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게 정신적인 기쁨이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나는 매일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봅니다.

최근 들어 나는 전에 비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그들이 얼마나 천박한가를 발견하고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생활을 위해 날마다 일을 합니다. 일을 마치고 나면 객실에 모여 앉아 무기력하게 잡담을 하거나 사회에 대한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기에 웬만큼 노닥거렸다는 생각자들 때쯤, 이제 자신들의 신전으로 퇴장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각자의 침대로 가서 또 다른 나태함의 층 위에

엮어집니다. 그들 중에는 미혼인 사람도 있고, 자신들처럼 게으른 가족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나와 아무 것도 나눌 수 없는 사람은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의 일들로 나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몇몇 사람은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중요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에 대해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존중해야만 합니다. 그는 빛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어떤 회사나 조직체 또는 사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일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이의 관심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저번 날 저녁에 나는 이 사소한 소음을 침묵시키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고요함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곳저곳 걸어다녔습니다. 나는 배를 저어 마을을 떠나 강 상류 쪽에 있는 페어 헤이븐 호수로 향했습니다. 해가 막 질 무렵, 한 남자가 잔잔한 호수의 배 위에 앉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떨어지는 이슬방울이 공기를 걸러 정화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무한한 고요가 내 영혼을 채웠습니다.

나는 온갖 사건으로 가득한 세상의 목덜미를 잡아 익사할 때까지 물살 아래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강 아래쪽으로 떠내려보냈습니다. 텅 빈 침묵의 공간이 사방으로 확장되고, 내 존재도 따라 커지면서 그 안을 채웠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나는 들려오는 소리들을 감상할 수 있었고, 어떤 소리든 음악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 헨리 데이빗 소로우, <<구도자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생활을 소박한 것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우주의 법칙이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될 것이다. 이제 홀로 있음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고 가난함도 가난함이 아니며 연약함도 연약함이 아닐 것이다. 간소화하고, 간소화하라. 하루 세 끼를 먹는 대신 필요하다면 한 끼만 먹으라. 백 가지 요리를 다섯 가지로 줄이라. 그리고 다른 일들도 그런 비율로 줄여 나가라. 진정한 부를 누릴 수 있는 가난, 나는 그것을 원한다. 가난하더라도 즐겁고 멋진 시간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현 옷은 뒤집어서 다시 입고, 옛 물건들에게로 돌아가라. 사물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우리들이다.

## ■ 마/음/으/로/읽/는/글

# 우리와 함께

우리 모두는 서로 존경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이웃의 일에 대해 호기심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자 합니다.  
우리들 마음을 갈라놓는 것을 원치 않고  
목자들과 함께 충실히 살고자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선행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오로지 하나의 기도  
즉 하나의 청원,  
하나의 마음  
하나의 희망과 보다 큰 기쁨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능가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이  
한곳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곁으로  
달려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2세기)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심방전도사 : 장영숙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성가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박정오 장민숙 박시내 윤정덕 구성실 김철수 유영남 조관행 홍선희  
 김준호 곽혜자 임승동 백혜숙 이인웅 최종원 박영숙 박옥순 고광승  
 이춘희 조병무 송양진 윤석철 장혜숙 박재실 김용원 왕성환 강순배

### 월정헌금:

정진경 허광식 이동천 왕수명 황원순 황자순 조병주 김성자 박찬정  
 전영자 정원석 김현영

### 감사헌금:

김애경 박성수 전영자 장영숙 김준호 곽혜자 권채영 윤주원 최윤선  
 박금희 김지원 서정순 조항미 오진훈 노순옥 아동부교사일동

생일감사헌금: 김중훈 임고운

##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영남	차혜심	심	심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곽권희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갈릴리	조병주	박애순		
베다니	임창선	박홍재		
시온	박효선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장혜숙		
빌립보	구성실	박현우		
가버나움	구명자	안홍숙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기획위원회** : 오후 집회 후 담임목사실에서 모입니다.
2. **수련회** : 청년회 수련회가 8월 7일 오후부터 10일(수) 저녁까지 천안 단비교회에서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3. **봉사** : 애니아의 집 목욕봉사가 8월 5일(금) 오후 12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 흘리는 섬김의 땀방울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종묘 급식봉사는 한 주를 연기하여 10일에 실시합니다.
4. **부음** : 김홍순 성도(85세)께서 지난 25일(월) 별세하셔서 장례를 엄수했습니다.
5. **신앙실천** : 아침 저녁으로 각각 20분씩 관상기도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줍니다.

8월	영접위원 : 한상익 김홍기 홍순구 최숙화 이형숙 이춘희
	헌금위원 : 방문성 박창운 안길상 임창선 김명순 박효선

\* 식당 봉사 : 베다니숙

\* 헌화 : 한선희 집사 (어머니 생신)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